

데이비드 A. 드실바 박사 , 히브리서, 2차 세션, 히브리서 1:1-2:4: 아들이 말씀하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 2024 데이비드 드실바 및 테드 힐드브란트

히브리서의 첫 번째 부분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 4절에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구성된 논증의 흐름을 관찰합니다. 이 18절에 너무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자가 이 서두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의 근처에 있는 기본적인 삼단논법, 모든 개별적인 세부 사항이 제공하는 수사적 목표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자는 청중의 주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수사적으로 인상적인 서두 진술을 하는데, 이는 연설 서두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 서두를 듣는 사람들은 수사적 화려함과 신중한 구조로 가득 차 있으며, 이 1시간 설교를 통해 재능 있는 연사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5장부터 14장 1절까지, 저자는 다음으로 구약성경에서 인용한 내용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청중에게 권위 있는 연사, 하나님의 신성한 신탁에 대한 전문가,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믿을 수 있게 열어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전달하면서 주의 깊은 경청을 얻는 데 기여합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자는 이 서두 논증에서 결론을 명확히 도출하고, 이는 설교 전체의 핵심을 울리며,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떠나려가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이 서두에서 우리는 이 필수적인 삼단논법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세대가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 우리가 아들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1세기에 이르러서는 천사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전달하는 데 도구 역할을 했다고 여겨졌습니다.

저자는 아들 안에서 전해진 메시지가 모세의 율법인 토라보다 더 많은 주의, 더 많은 순종, 그리고 더 부지런한 헌신을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구절을 구절마다 더 면밀히 분석하면서 저자가 1:1에서 2:4까지 전개하는 이 더 큰 주장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서두 대조에서 우리는 이 울려 퍼지는 서두 진술을 듣습니다.

많은 부분과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대조를 탐구했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는 두 번째 구절에서 평행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며, 모두 서로에 대해 대조적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의 마지막인 지금과는 달리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은 명예롭지만 열등한 사자, 즉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가장 최근에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저자가 계속해서 설명할 것처럼, 이러한 반대 쌍에는 각각 수사적 힘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선지자들보다 더 큰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통해 전달된 것은 더 큰 중대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 큰 주의와 순종을 명령합니다. 오래전에 말씀된 것은 물론 신의 신탁으로서 중요하지만, 현재에 말씀된 것은 바로 이 청중에게 말씀되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잘 응답해야 할 책임을 더 높여줍니다.

서두 문장의 한 요소는 두 번째 반의어 절에 대응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말한 내용이 여러 조각으로 여러 방식으로 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자가 이스라엘의 신성한 역사 전체에 흠어져 있는 많은 조각과 신성한 계시의 신성한 수단을 구약성경에서 살살이 뒤져 이러한 신탁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적 독해에서 만화경적 방식으로 모으면서 저자의 해석학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1장의 나머지 부분, 5절에서 13절은 이와 관련하여 웅장한 서두를 제공하며, 사무엘하, 시편, 신명기의 이러한 많은 계시 조각 중 일부를 만화경적 방식으로 꺼내어 이러한 많은 조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성취된 하나의 집중된 신성한 말씀으로 어떻게 모이는지 보여줍니다.

히브리서의 서두 문단은 아들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말하고 있으며, 성육신 이전의 예수에 대해 생각하는 매우 초기의 기독교적 증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문단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잠언에서 구약 중간기까지의 유대인 지혜 전통을 히브리서 저자가 성육신 이전의 아들의 경력에 대해 생각할 때 사용하는 원료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잠언 8장에서 지혜의 인격화로 시작됩니다. 지혜의 여인은 그곳에서 연설을 하고 있으며,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깊은 곳에 원을 그리실 때, 그가 위의 하늘을 굳게 세우실 때, 그가 깊은 곳의 샘을 굳게 세우실 때, 그가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그의 명령을 범하지 못하게 하실 때, 그가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나는 숙련된 일꾼처럼 그 곁에 있었고, 나는 날마다 그의 기쁨이 되어 항상 그 앞에서 기뻐하였고, 그가 거하시는 세상에서 기뻐하였고 인류를 기뻐하였습니다. 지혜에 대한 이 아주 오래된 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에 있어서 동반자가 계셨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옆에 어떤 인물이 있었다는 생각을 발견합니다. 지혜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반자라는 생각은 지속되고, 그런 다음 잠언은 유대인의 지혜 전통을 이어받아 그것을 영속시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라는 책에서 이러한 발전을 봅니다. 이것은 서기 1세기 초 지중해 디아스포라 어딘가에서 그리스어로 작성된 유대인 텍스트였습니다. 이 텍스트의 저자는 또한 지혜가 신이 우주를 창조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확언합니다.

지혜는 모든 것의 형상자였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혜는 창조된 질서의 지속적인 통치와 유지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저자는 지혜가 자신 안에 머물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모든 것을 잘 정리한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진술도 있는데, 이는 잠언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의 지혜서 7장에서도 지혜는 영원한 빛의 반영이며 신의 선함의 형상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신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신과 창조물 사이의 중재적 인물로 여겨지는데, 창조 행위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신의 창조 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래는 어떤 면에서 신과 함께 지혜가 지속적으로 일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의 지혜를 묵상하는 동안,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선함과 완전함을 반영하는 데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론을 위한 원료가 되었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중재자는 예수의 인격에서 명확한 얼굴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대리인, 지탱하는 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반영하는 아들의 성육신 이전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혜에 대한 유대인의 문화적 지식을 통해 채워졌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확실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서두 진술에 아들에 대한 찬사를 보냅니다. 즉, 아들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며 확장하는 몇 줄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아들 안에서 말씀된 말씀의 중요성을 확대하는 목적을 직접적으로 충족합니다. 왜냐하면 메신저의 영광은 메시지에 대한 영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러나 그것은 또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창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고, 그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셨으며, 그를 통하여 시대를 창조하셨고, 그는 그의 영광의 정확한 표상이시며 그의 존재의 인장이시며,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니셨습니다. 그는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서 위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여기서 제기된 첫 번째 주장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술에서 저자는 시편 2편의 언어를 인용하는 듯합니다. 시편 2편은 예를 들어 시편 45, 46, 110편과 함께 소위 왕의 시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왕의 시편은 다윗 왕이나 다윗의 후계자를 다윗 왕으로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유대의 독립이 끝난 후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이 시편들은 군주제의 미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편들은 메시아 시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편들을 계속 암송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에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계속 살려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적 시편은 예수에 대한 초기 기독교인의 성찰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 특히 저자가 예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예수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그것들을 채굴하는지 볼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제시되며, 그는 다윗의 군주에게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네게 민족들을 유업으로 주고 땅 끝까지 네 소유로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자는 예수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말하면서, 예수 또는 아들을 이 약속, 이 메시아적 약속이 주어진 자로 확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스라엘 왕국이 아들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모든 권세가 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공유합니다.

왜 그는 아들의 지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설교 전반에 걸쳐 저자는 이 서두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합니다. 첫째, 그는 듣는 사람들에게 아들의 영광에 그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하거나 상기시킵니다. 예수께서 가신 곳으로 그들은 따를 것입니다. 아들이 받은 영광은 많은 아들과 딸에게도 넘칠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지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또한 부분적으로 많은 아들과 딸들에게 떨어진 불명예를 위한 치유책이며, 이웃이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그들의 가치에 대한 마지막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예수께서 들어가신 것과 같은 유산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에 대한 마지막 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저자는 또한 회중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깨지 않도록 경고하는 데 아들의 지위를 사용할 것입니다. 즉, 세상과의 우정을 위해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돌아섬으로써 모욕을 줄 사람의 지위가 클수록 그러한 사람을 모욕한 것에 대한 결과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저자는 아들의 고귀한 지위에 대해 계속 확장하면서, 이 순간에 이 예수에게 적절하게 응답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저자가 아들에 대해 하는 두 번째 주장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전통이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론을 키우는 특정 장소입니다.

예전에 지혜가 창조에서 하나님의 파트너 또는 대리인이라고 말했던 것이 이제는 아들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창조에서 대리인이었던 것은 아들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콜로새서의 서두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모든 창조물의 맏아들이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곧 왕위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나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또한 히브리서에서 발견되는 것을 네 번째 복음서의 서두 구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시작이 말씀이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읽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 생겨났으며,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창조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아들에 대한 이 더 큰 초기 기독교 대화를 공유하는데, 그 대화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유대인의 지혜 전통을 사용하는 광범위한 경향을 봅니다. 아들에 대한 이 주장에는 창조주에게 빚진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창조된 존재, 존재 자체의 선물을 받은 존재는 이 선물을 준 존재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기꺼이 인정할 기본적인 윤리 원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니코마코스 윤리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신의 역할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예배를 신에게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자가 아들에 대해 하는 세 번째 주장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또는 밝음이며 하나님의 존재의 정확한 각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지혜의 전통, 특히 솔로몬의 지혜에서 읽은 전통을 발견하며, 이는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론을 형성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저자는 지혜를 하나님의 선함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도장의 이미지나 각인을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초기 기독교 담론과 광범위하게 공명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쓴 것처럼,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한번, 저자는 지혜의 전통을 통해 이 예수의 중요성, 사실상 전능하신 분의 보이는 표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광범위한 기독교적 경향을 공유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제기된 또 다른 주장은 그가 강력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써 모든 것을 지탱하고, 강력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계속 감당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그녀의 말씀으로 지탱하는 지혜의 여인을 대신하여 제기된 주장에서 반영된 것을 보았습니다 .

우리는 또한 골로새서 1:17에서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확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유사한 주장을 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지혜의 전통은 아들이 예수로서 성육신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초기 기독교 신념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여기서 성육신으로 인해 아들이 이론 주요 업적으로 옮깁니다. 그는 죄를 정화했습니다. 우연히도 이것은 콜로새서 1장에서 예수에 대한 찬사의 또 다른 특징인데, 14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속을 얻었으니 곧 죄 사함이라"고 읽습니다. 연설의 서론에서 연설 본문에서 다룰 주요 주제를 소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하는 일인데, 예수의 희생의 방식과 결과, 즉 죄를 정화하는 것이 이 설교의 중심 장들, 즉 7장에서 10장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또한 여기서 매우 미묘하게 청중들이 그러한 은인에게 빛진 빛을 상기시킨다. 이 예수는 성육신 이전의 아들로써 우주의 창조주이자 유지자였지만, 성육신한 아들로써 그들 각자의 구원자였으며, 그 자신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대가를 치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왔다.

저자는 예수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상기시키면서 빠르게 이를 이어갑니다. 그는 죄를 정결케 한 후, 높은 곳에서 위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시편 110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첫 구절은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으라. 시편 110편은 원래 다윗 군주에 대한 시편으로 쓰여졌고, 심지어 그들에게 말한 시편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다윗 군주제가 사라지고 유대가 독립한 이후 수세기 동안 중요한 메시아적 자원이 되었다.

시편 110편과 같은 본문은 예수의 지상 사역 이후 아들의 경력에 대한 정보를 저자에게 제공하는데, 지혜의 전통이 성육신 이전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로서 가장 소외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아들의 승영에 대한 서두의 상기는 이 설교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할 주제입니다. 즉, 이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우주에서의 부끄러움은 영원 속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소외와 수치를 통해 걸었던 길은 그를 우주에서 가장 높은 명예의 자리로 데려온 길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듣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예로 가는 길이 실제로 일시적인 불명예를 견뎌내는 길, 그들 스스로가 얼마 동안 걸어온 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듣는 이들에게 아들의 높은 지위를 상기시키는 것은 이 아들과 보호자-후원자 관계를 맺지 않았거나 그 관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따르는 결과를 암묵적으로 상기시킵니다. 저자는 1장 마지막에 시편 110편 1절을 전문 인용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명확히 밝힙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만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저자는 듣는 이들에게 그토록 높은 인물과 연결될 수 있는 특권을 동시에 상기시키지만, 그러한 인물과 단절되는 것의 결과, 즉 아들의 집안의 충성스러운 일원이 아니라 아들의 원수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의 결과도 상기시킵니다.

저자는 아들의 위대함, 지위, 업적에 대한 서두 진술을 천사에 대한 아들의 상대적 명예에 대한 진술로 마무리합니다. 그는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해졌는데, 그가 물려받은 이름이 천사의 이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저자가 왜 이제 천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자가 어디로 가는지, 즉 2장 1절에서 4절과 그 권고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천사들에 대한 아들의 더 큰 영예를 확립하여,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보다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헌신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어 초기 유대교의 천사들에 대해 생각하여 저자가 여기에서 한 진술의 배경과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 언급할 진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천사는 유대교 문헌에서 하나님의 천상의 수행원의 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사역자,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의 대리인이며, 범죄자에게 신의 심판과 형벌을 내립니다. 그들은 종종 신의 종과 신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천사들은 또한 역사서나 제2성전 시대의 책에서 자주 등장하며, 천상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웁니다.

두 번째 성전 시대에 발전한 천사의 한 가지 특별한 역할은 신의 사람들의 요청, 신의 은총, 기도에 대한 응답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대천사는 신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종종 면전의 천사로 불립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의뢰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이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복서, 토빗서 또는 요한 묵시록과 같은 정경 외의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능은 천사에게 기인되기 시작했는데, 하늘에 있는 신의 거처가 점점 더 천상의 성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천사는 천상의 성전의 궁정에서 제사장과 목사가 되며, 레위와 그의 후손의 사역은 지상에

반영될 것이다. 이것의 가장 두드러진 표현은 기원전 1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12명의 족장의 유언 중 하나인 레위의 유언에서 나온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의로운 자들의 무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대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기분 좋은 향기, 합리적이고 피가 없는 제물을 바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서기 1세기에 청중은 천사, 모세, 레위 제사장을 어떤 면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은총의 중재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신성한 도움의 확보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먼저 천사, 그다음 모세, 그다음 레위 제사장을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세 가지를 모두 하나로 묶어 모든 중재자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와 비교하면 초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 시대에 천사에게 점점 더 중요한 역할로 여겨지는 또 다른 역할은 토라의 중재자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러면 왜 율법이 필요하냐고 썼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받은 자손이 올 때까지 범법 때문에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보자를 통해 천사들을 통해 제정되었습니다. 같은 생각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의 연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테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한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서 회중에 있었던 사람이며, 우리에게 줄 살아있는 신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스테반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서, 너희는 천사가 정한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히브리서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저자는 천사를 통해 전해진 말씀에 대해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모세 언약, 곧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보자이자 사자인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을 의미합니다. 저자가 1장 4절에서 아들이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는 주장은 그가 물려받은 이름이 천사의 이름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며, 이는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일련의 성경 인용을 위한 시작점이

됩니다. 이러한 인용이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주장을 전개한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되는데, 청중 중 누구도 아들이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는 주장을 심각하게 반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장을 저자가 청중과 논쟁의 요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청중과 공통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저자가 1장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찌르는 듯한 아픔은 그의 따라서에 이어지는 2장 1절에서 올 것입니다. 이 일련의 성경 인용은 세 개의 논증 블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5, 6절에 있고, 두 번째는 7, 12절까지 이어지고, 세 번째는 13, 14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블록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셨는가? 그리고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저자는 여기서 첫 번째 시편 2장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하는데, 이 두 구절은 모두 다윗 군주 사상의 핵심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인의 지배 하에서 계속 수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독립과 독립 군주국을 회복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바람직하게는 다윗의 집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구절들은 메시아적 본문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의 청중이 시편 2장이나 사무엘하 7장 14절과 같은 본문을 메시아적으로, 특히 아들 예수에 관해 말씀하신 대로 읽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서두는 또한 1장 13절과 깔끔하게 연결된다. 5절과 13절은 모두 같은 수사적 질문으로 시작한다. 하느님은 천사 중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 논증의 두 번째 단계는 신명기 32장 43절의 변형을 포함한다. 저자가 쓴 대로, 그러나 그가 다시 맏아들을 거주하는 영역으로 인도할 때, 그는 말한다. 그리고 모든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게 하라. 이 본문은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에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명기 32장 43절의 본문에는 흥미로운 변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약성경 영어 번역이 의존하는 마소라 본문에는 이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게 하라. 1세기에 통용된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에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그를 경배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게 하라. 저자가 그와 그의 청중이 확인하는 우주론에 더 잘 맞도록 본문을 약간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명기와 고대 이스라엘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여러 아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2성전과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 작가들이 신의 천상의 아들들이나 다른 잠재적으로 신성한 존재에 대해 말할 가능성이 훨씬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날까요? 신의 천사들은 언제 아들을 경배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이 맥락에서 그리스어 단어 *oikumene*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들이 다시 데려온 이 거주 영역은 무엇인가? 여기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이 용어의 두 번째 사용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오이쿠메네가 거기에서 오는 영역, 오는 오이쿠메네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맥락에서 저자는 지상의 영역, 물질 세계의 거주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 그 너머의 영역, 신성한 영역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저자와 그의 청중에게 다가올 영역인데, 그들은 아직 그 영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영역은 이미 물질적인 땅과 눈에 보이는 하늘 너머에 존재합니다. 시편의 칠십인역 번역에서 하늘과 땅은 흔들리고 제거 가능한 것으로 언급됩니다. 그리스어 단어 *ouranoi*, 하늘, *gei*, 땅은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시편의 그리스어 번역에서 그리스어 단어 oikumene은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편의 그리스어 번역에서 하늘과 땅과 oikumene을 구분한 것에서 단서를 얻은 듯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흔들리지 않는 영역을 흔들고 제거될 운명인 창조된 영역과 대조적으로 신성한 영역과 연결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6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떠나신 신성한 영역으로 돌아오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돌아오심은 그의 영광의 순간이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육신 전에 아들은 천사들보다 더 큰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승리의 돌아오심은 그의 승영을 다시 기념하는 기회였으며, 천사들은 그의 앞에 엎드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순종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의 마련에 대한 그의 최고의 영예를 인정했습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1:7에서 마주치기 시작하는 성경 인용문의 과정에서 두 번째 논증적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그는 한편으로 천사들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의 영과 그의 사역자들을 불길로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에 관해서는, 오 하나님여, 당신의 보좌는 영원무궁하시며 당신의 왕국의 막대기는 의의 막대기입니다. 당신은 정의를 사랑하셨고, 불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당신의 하느님께서 기쁨의 기름으로 당신을 당신의 동료들보다 더 기름 부으셨습니다. 저자는 이 왕의 시편인 시편 45편에서 아들의 다른 천상의 존재들, 그의 동료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보증을 찾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의 언어는 특히 메시아의 왕권과 그의 제사장 역할과 지위에 모두 적합합니다. 저자는 그의 설교를 통해 긴 내용을 전개할 것입니다.

예수가 왕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시편의 본문이 증거하듯이, 아들은 영구하고, 영구히 왕좌에 앉았습니다. 반면에 저자는 천사가 조금 더 변덕스럽다고 암시합니다 .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바람이나 불길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변함없고, 신뢰할 수 있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이 대조는 다음 성경 인용문에서 더욱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은 태초부터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은 당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것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당신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옷처럼 낡을 것이고, 외투처럼 당신은 그것들을 말아 올리실 것이고, 옷처럼 그들은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똑같고, 당신의 세월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본문, 시편 102편은 원래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시편의 일부로, 부분적으로는 간청자의 제한된 수명과 하나님의 끝없는 세월을 대조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절을 발췌한 것처럼, 저자는 물질적인 가시적 영역인 하늘과 땅, 그리고 태양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영역은 일시적입니다. 옷이 낡아서 바뀌거나 망토가 말려 올라가는 것과 같이 파괴될 운명입니다. 그러나 태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당신은 항상 똑같고, 당신의 세월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면에서 저자의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태양은 지속됩니다.

태양과의 연결은 영원히 중요한 것과의 연결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창조물에서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중요합니다. 이는 관객의 맥락에서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영원히 이익을 줄 수 있는 분에 대한 그들의 집착을 정말로 포기할 것인가? 태양의 변할 수 없는 특성이 태양을 극도로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저자의 주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미묘하게 드러나지만, 더 완전하게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자가 당신은 똑같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이 변함없다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을 말하는 맥락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1세기 후반과 2세기 초반의 그리스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디오 크리소스톰은 불신에 대한 주제로 연설을 썼습니다.

이 연설에서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그는 인용문에서, 아무도 내일이 되어도 그 사람이 지금과 같을지 모른다고 썼습니다. 아무도 내일이 오늘과 같을지 모르고, 이는 신뢰를 침식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태양이 미래에 대한 믿음의 확실한 근거라고 이미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 창조물이 제공하는 어떤 것도 근접하지 못합니다. 저자가 하는 세 번째 논증적 움직임은 1장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나옵니다.

그는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놓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암시된 대조가 있습니다. 어떤 천사에게도 말씀하지 않은 것은 초기 기독교의 시편 110편에 대한 이해에서 태양에게 말씀한 것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예수에게 말씀한 신성한 신탁으로 읽혔습니다. 이미 역사적 예수가 이 구절을 메시아적 텍스트로 낭송한 것으로 기억되었는데, 그의 반대자들은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2장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시편 110편을 꺼내어 서기관들에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다시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의 즉위에 대한 왕의 시편이며, 미래의 왕,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시편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의 종말론적 의미는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따르는 아들, 예수가 마지막 시대의 승자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적들은 그의 통치에 복종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모든 적들은 특별히 모욕을 당하고, 그의 발판으로 그의 발 아래에 놓였습니다. 저자는 종말론적 지평이 그가 주로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위기를 도입하기 때문에 그의 청중을 위해 그 종말론적 지평을

명확하게 볼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이 세상의 것에 있는 한, 기독교 집단에 대한 헌신은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아들의 귀환의 날에 굳게 고정되어 있다면, 그들은 저자의 생존과 성공에 대한 계획을 받아들이고 따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신앙 고백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과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그리스도인 증거가 포함됩니다. 저자는 천사에 대한 또 다른 수사적 질문으로 이 논쟁 기간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봉사하도록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여기서의 수사적 질문은 다시 한 번 청중이 천사에 대한 저자의 진술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저자가 청중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부족한 그리스도론이나 청중들 사이에 천사 숭배에 대한 과도한 열광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천사는 본질적으로 우주의 하인이며, 그들의 종에 주어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천사, *angeloi* , 메신저, 사절입니다. 초인적 존재로서의 그들의 영광과 지위는 단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신 예수님의 더 큰 영광과 지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입니다 .

이 마무리 수사적 질문의 한 구절은 더 자세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자는 믿는 자들을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구원의 배후에 있는 그리스어 단어는 익숙한 단어인 소테리아 , 구출, 구원입니다 .

히브리서의 저자는 많은 기독교인, 특히 오늘날의 기독교인과는 구원에 대한 사고의 틀이 매우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은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이미 즐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베드로전서의 저자와 매우 비슷하게 구원을 미래의 선,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신성한 영역으로의 환영에서 오는 것으로 말합니다.

저자가 여기서 참조하는 틀과 최후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구원이나 구원을 특별히 사용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신학에 대한 논의에 구원을 잃는다는 생각을 도입하는 것은 특히 문제가 됩니다. 히브리서 6:1~8을 자세히 논의할 때 이 문제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자는 1장 5절에서 14절까지 자신의 목표 중 몇 가지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듣는 사람이 예수의 영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는 그 영광을 인정하지 못하는 위험한 결과를 암시했습니다. 그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창조물의 일시적인 가치를 새롭게 확립하여 희망과 신뢰를 위한 유일한 확고한 근거가 아들로 남아 있고 청중이 물질적 재화를 회복하거나 이웃들의 눈에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아들의 원수인 이웃들의 눈에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이미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아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은총을 유지하고 그의 적들의 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저자가 답하는 질문의 종류입니다. 2장의 서두에서 저자는 1장의 논증적 목표에 도달합니다. 이 때문에, 아들의 위대한 위대함 때문에, 천사들을 먼지 속에 남겨 두실 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떠나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이 확증되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의 행위가 정당한 기록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크게 소홀히 했다면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저자는 이 서두에서 자신이 앞장의 '그래서 뭐야'를 말하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그가 지적하는 위험은 떠나려가는 위험입니다. 우리가 들은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전한 길에서 떠나려갈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이웃들이 실제로 긍정적으로 여길 행동에 대한 이념적 색채를 제공합니다.

저자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표류이며, 기독교인의 비기독교 이웃들은 그것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선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 속에서 저자는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의 주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당시 유대교와 그리스-로마의 수사학에서 매우 흔한 주장 형태입니다. 더 작은 경우는 천사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 즉 토라의 타당성과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확인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진지하게 받아들인 방식이며, 그래서 법의 규정이 보상이나 처벌로 시행되었습니다.

아들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 만일 토라, 즉 더 작은 말씀이 그렇게 심각하게 강요되었다면, 더 큰 사자인 아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은 얼마나 더 엄격하게 강요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장에서 그리스도의 명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그의 메시지와 그의 은사가 소홀히 여겨질 때 그리스도에게 가해지는 모욕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복음의 약속에 대한 그러한 소홀함을 보이고, 따라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토라를 범한 사람들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목사는 청중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공경하는 삶을 최우선 순위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영은 이러한 의제를 추구하는 것을 더욱 풍부하게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권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이 설교의 처음 네 장 전체에 걸쳐 중심 모티브가 될 것입니다.

또한 4장, 6장, 10장, 12장에서 발표된 위대한 구원과 은혜를 소홀히 할 때 따르는 위험에 대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2장 1~2절은 설교의 핵심처럼 들립니다. 저자는 2장 3절과 4절에서 회중이 받은 메시지의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통해 말씀되었지만 , 성육신한 아들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자는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삶을 재편하고, 그것을 위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손실을 견뎌낸 메시지가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건설할 바위이며, 그들의 공동체를 휩쓸고 지나간 변덕스러운 신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의 서두에 있는 수사적 힘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청중을 먼저 아들, 예수 자신의 인격에 다시 집중시킵니다. 청중이 예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예수가 가져온 혜택,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혜택에 대한 약속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청중을 그들의 상황에서 작용하는 더 큰 위험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운동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일시적인 명예나 선행보다 잃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는 또한 청중을 공간과 시간 측면에서 더 큰 그림에 집중시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현재와 여기에서 그들의 삶의 우주론적, 종말론적 배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늘과 땅 자체의 일시적인 본질을 상기시키고, 눈에 보이는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의 가치가 낮다는 것을 상기시켜 그들이 즉각적인 상황에서 대안을 더 잘 평가하고 영원에 이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문제, 즉 태양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에 대한 성경의 난해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 설교의 일부에서 히브리서 저자의 도전은 크고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를 우리 삶에서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에서는 제자도를 바쁜 삶에 대한 온건한 추가 사항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의 일시적인 안녕을 보장하는 데 투자됩니다. 우리는 이 삶의 것들, 직장, 자신이나 가족을 부양하는 것과 같은 좋은 것들,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와 연결, 취미 또는 오락에

얼마나 많은 시간, 에너지, 자원을 투자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절로 가라고 하시는 장소로 가는 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봉사하거나 좋은 소식을 나누거나 어떤 식으로든 우리 주변 세계에 그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이러한 자기성찰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과 웰빙이든, 아니면 신에 대한 우리의 봉사이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이든, 그 관계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의무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든 말입니다. 저자가 하는 또 다른 기여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우리는 신의 얼굴을 본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예수의 열정과 갈망에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갈망을 더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론은 궁극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아들이 하나님의 존재의 정확한 각인이라는 저자의 기본적인 신념을 공유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데 대한 것입니다. 특히 복음서를 연구하고 예수께서 무엇에 깊이 관심을 두셨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어떻게 제자들을 모아 세상에 투자하도록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세상에 투자하지 않도록 가르치셨는지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의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일상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더욱 신중하게 일치하도록 초대받고, 실제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한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투자하고, 정렬하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분별하도록 도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인상을 주는 것 중 하나는 인생의 짧음과 매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죽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사용할까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제한된 시간을 영원을 위해 현명하게 투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아

, 시간, 그리고 삶을 낭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큰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단순히 증발할 것을 추구할까요? 이에 대한 당연한 귀결은 우리 삶을 기반으로 삼고, 우리 삶을 건설할 견고한 바위가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그리스도는 영원하지만 세상과 세상의 모든 관심사는 덧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설교자는 찬송가,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견고한 바위로 예상합니다.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입니다.